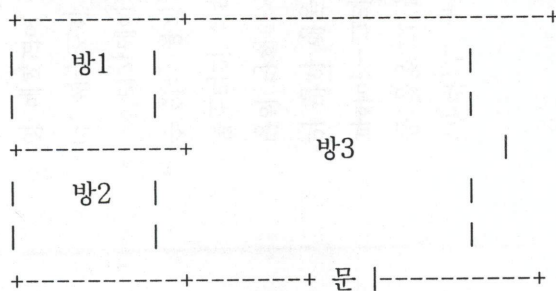


총여학생회 공간 사용에 대한 제 11대 총여학생회의 입장(정정판)

안녕하십니까? 제 11대 총여학생회(이하 11대 총여)입니다. 이번에 총여 내 발생한 공간문제의 경위와 총여학생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총여학생회에 당선된 후, 처음 이월문제로 총여실에 들어섰을 때 당황하였습니다. 총여실 문을 열면 당장 보이는 공간이 있고 안으로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그 중 방2에는 총여 컴퓨터와 랜선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제 11대 총여에서는 핵심 사무국 공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0대 총여에서 하시는 말이 '그 방은 우리 대에 두입술에게 주었고 또 다른 방(방1)은 6대부터 관례로 애포래에게 주기로 인정해 온 곳이니 협의를 해 보라' 는 것이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10대가 공간 역시 완전히 이월해 줄 것을 예상했던 저희로서는 두입술과 협의하라는 이야기가 언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의 협의체로 총여를 정의하고 공간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기로 한 것이 10대 총여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11대 총여는 자치단체 뿐 아니라 다수의 연세 여학우의 대표기구로서의 총여학생회라는 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서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11대의 기조는 최소한 임기 기간동안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총여학생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총여를 세운 1대 회장님과 면담을 해 본 결과, 87년 총여학생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는 현재 2층의 장학복지처 공간에 총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장학복지처와 오랜 협상 끝에 총여실이 총학과 함께 나란히 3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3층의 장학복지처 공간이 상당히 넓었던 관계로 공간을 쪼개어 동아리 방으로 몇 개를 주고 남은 공간이 지금의 총여실입니다. 당시 총여실의 공간 사용은 편집실과 각 대학 여학생회의 회장단 회의실로 각각 작은 방이 쓰여졌고, 큰 방(방3)은 주로 집행부가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9대 이후 1996년도에 총여선거가 무산되고, 여성자치단체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총학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총여실을 점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그 후 중운위에서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총

여실을 사용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공간을 사용한 여성 운동단체들은 성정치 위원회, 여성학 소모임, 법대 동쪽-이상 여성자치연합- 그리고, 사회대 beyond, 애포레, H.O.P.E., 대학생 대중문화 감시단 내 여성문제 모임 등 8개의 여성모임이 있었습니다. 97년 재개된 10대 총여 선거에서는 여성주의가 당선되었고, 1998년 임기 1년동안 여성 자치 단체들과 총여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자치 단체에서 후보로 나온 팀과 경선을 하여 제 11대 여성창조 총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여실 공간 사용은 대가 바뀔 때마다 여학생회가 바라본 공간인식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단체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임기인 1999년도 1년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 그 공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 방은 저희가 발간하려는 공공소식지의 편집을 위해 중요한 공간이고 또 다른 방 역시 독립된 집행국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 같이 여성운동을 하는 것인데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운동이라 하여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입술 등은 선거 당시 현 총여와 경선에서 경쟁하였던 팀이었습니다. ('여성행동' 자료집을 보면 두입술 편집위원회 회원이 운동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기조로 나왔기에 당연히 서로 다른 운동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단체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데서 야기되는 불편함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려했던 많은 일들을 핵심사무국으로 사용될 공간의 부재로 진행할 수 없었고 회의조차 목소리 높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학생운동은 나름의 지향성을 인정하고자 하면서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로 묶으려고만 하십니까? 여성운동의 활발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각각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을 받은 이후 11대 총여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간문제로 사업의 진행은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해야 할 산적인 업무들을 두고 공간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중요한 안건의 논의를 진행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같이 공간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와 견해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었기에 더욱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방을 두입술과 함께 쓰고 있는 관계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편집업무와 Network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선거당시 5000여학우 앞에 약속한 공약이 있고, 이 공약을 1년간 성

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가 학우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시행되었고 임기를 정했다면 주어진 임기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학우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싶을 따름입니다.

총여학생회 공간은 물론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가 여성자치단체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연세의 5000여학우를 위해 당당히 일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다수의 여학우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위의 공간에 대한 총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집기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논의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1단계 : 12월 8일 >

총여학생회와 이월문제로 첫면담을 하다. 컴퓨터가 있는 방에 생활도서관(이하 생도)과 두입술의 간판이 붙어 있었고 10대 총여에서는 이 방사용에 대해 두입술, 생도와 논의해 보라고 하였다.

< 제2단계 : 12월 11일 >

두입술, 생도와 면담을 하다. 올 한해 주력하게 될 복지문제와 공공소식지 편집 등을 위해 총여의 공간이 모두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하다.

특히, 당시 생도는 독립하지 않은 10대의 자료학술국 산하기구였으며, 11대 자료학술국에 일단 이월하기로 한 상태였다. 두입술의 경우도 10대 산하 편집국에 있다가 독립한 경우이므로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문제(특히 공간은 첨예한 문제임을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를 들어 곤란한 입장임을 밝혔다. 두입술에서는 편집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생도는 독립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독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공간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총여학생회실 옆에 있는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을 복합 공간화한다는 측면에서 생활도서관과 편집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휴는 완전한 휴게실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총여도 공감하였기에 서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논의가 좁혀지지 않은 채 마쳐졌다.

< 제3단계 : 12월 14일 >

공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학생처와의 면담을 요청하다.

전 여학생처장님과 현 여학생처장님, 그리고 여학생처 주임, 현 총여의 회장, 부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공간 상황과 공간의 실무 책임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휴 경우 단대 여휴는 각 단대에, 중앙도서관 여휴는 중앙도서관에 관리 권한이 있고, 논지당과 학생회관의 여휴만이 여학생처 권한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학관 여휴에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고 24시간 개방인 관계로 지저분하고 남학우들이 밤에 자고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총여학생회에서 직접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제4단계 : 12월 19일 >

두입술, 생도와 두번째 면담을 하다.

두입술에서는 문건을 마련하여 공간사용에 있어서는 전대 총여와 이미 합의된 문제이며 따라서 새롭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입술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례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두입술이 당시 주었던 문건 인용). 또한 여학우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생도를 여학생휴게실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생도는 보안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거절하였다.

총여에서는 관례라는 부분은 선거를 통해 새롭게 학생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생도가 열린공간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고려해 보기로 하였다. 이 때에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서로 노력해 본 후 1월 20일을 기한으로 결정하였다.

총여는 학내 여성운동에 있어서 학교와 연결되는 공식적인 통로라는 입장에서 두입술만인 아닌 여성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여성문제에 관련된 세미나를 위해 언제나 개방된 공간을 구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두입술에서는 학내에서 자신들의 공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지를 얻기 위해 연서를 받기로 하였다. 총여에서는 두입술이 당연하게 총여실을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공간을 쪼개어주다 보면 결국 총여학생회 내에서도 힘을 실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동의한 두입술과 총여는 여성 운동과 관련된 힘(공간문제를 포함)을 외부로 확산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 제5단계 : 12월 26일 >

26일 이전에 학내 여성모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에 부심하던 중 구상대 뒤 가건물에 공간이 하나 비어있음을 총여측에서 확인하다. 이 공간은 상대학생회 관할이며 현재 상대동아리와 문대동아리가 이건물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법대동아리도 몇몇 들어와 있었다. 그 후 그 공간에 대해 생각하다가 26일에 우선 점유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가건물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 약간의 총여 기물을 옮겨 두었다. 그러나 그날 바로 여성자치단체 중 하나인 열세번째 대표 장다혜씨가 법대학생회에 알 아본 바 법대 학회실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 주었다. 며칠 뒤 그 공간에는 열쇠가 잠겨져 있었다.

< 제6단계 : 12월 31일 >

두입술에서 구상대 안에 있는 강의실 옆의 여학생 휴게실이라 이름불려진 공간에 대해 의뢰를 부탁하다. 총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공간은 거의 일년간 문이 잠긴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구상대건물 자체가 단대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학생 휴게실로서도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여에서는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 제7단계 : 1월 5일 ~ 7일 >

1월 5일

신정연휴 후 제의가 들어온 구상대 여학생휴게실에 대해 여학생처장님께 협조를 요청하다.

1월 6일

여학생처에서의 회답은 이러하다. 그 공간은 현재 정보통신부 관할로 되어 있으며 이 후 법대연구실이 들어서게 되면 관할이 옮겨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1월 7일

총여가 여학생처에 공간을 강력히 요청하다. 이에 따라 여학생처장님은 학교안의 공간을 전체 관할하고 있는 기획처와 면담하였고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명목으로 당분간 사용가능함을 긍정적으로 밝히셨다.

< 제8단계 : 1월 8일 >

구상대 여학생 휴게실의 사용권을 얻어내고 구상대 관리실로부터 열쇠를 받아 복사하다. 그러나 그 순간 여학생처로부터 긴급호출을 받아 가보니 이미 법대 교수님들의 방으로 사용되기 위해 공사가 진행중인 데다가, 정보통신부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학생자치단체의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기획처장으로부터 긴급연락이 왔다고 하였다. 여학생 휴게실로서의 공간으로 주장하였으나 공간 자체가 워낙 작고 휴게실로 쓰이기에는 부적당하며 단대 건물이 아닌 외부 조직의 복합적 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실제로 한쪽은 정보통신부, 한쪽은 실업대책본부 관할이다.) 여학생 휴게실의 개념이 적절한 논거가 될 수 없었다. 여학생처에서 다음주에 휴가인 관계로 기획처장님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면담해보기로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생활도서관과의 면담을 하게 되다. 여성학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던 총여에서는 논지당에 있는 여성학 도서관이 학우들의 접근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미 93년부터 논지당에 여성학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10대에서는 생활 도서관이라는 여성학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여성학 도서관과 이후 만들어진 총여 생활 도서관의 목적이 상당부분 겹침으로 말미암아 예산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원래의 여성학 도서관은 논지당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도 외부 통로가 있어 여학우들의 접근도가 높으며 남학우들 역시 사용이 용이하다. 도서관의 위상에 있어서도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과 네트워크를 이루려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11대 총여에서는 학우들의 편리성과 접근도가 높고 효율적인 여성학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이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논지당 내 여성학 도서관과 연계하여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여학생처는 한학기 40만원이라는 도서구입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시간제 관리직원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구입계획이나 행정운영에 총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총여의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도서관이 총여학생회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이용대상이 일반 학우들임을 고려할 때, 논지당 내 여성학 도서관과 연계하는 것이, ① 학우들의 접근도를 높이고 ② 중앙도서관의 미비한 여성학 도서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실제로 대출건수나 대출자의 다양성에서도 논지당의 도서관이 총여실 내의 생활 도서관보다 앞서고 있었다.

위의 논거를 들어 생도와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생도에서는 도서관이 자치를 위한 개념이라고 보고 독립을 요구하며 여성학 도서관과의 연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총여에서는 도서 구입이 총여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10대 산하에서 11대로 이월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계속 독립을 요구하여 그들이 독립하는 대신 자치단체로서만 인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공간 문제 역시 더 이상 총여 산하의 생활도서관 개념이 아닌 자치 단체 개념의 공간과 함께 병행됨을 밝혔다.

이 때 생도에서는 두입술이 지난번 의뢰한 공간은 두입술만의 것이고 생도 및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따로 공간을 요구할 것이며 총여에서는 두입술에서 의뢰한 공간과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총여에서는 학교의 부족한 공간상황을 알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며 처음 면담할 때에도 두입술을 포함한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으로 생각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생도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총여는 자치단체의 기반으로 도서관을 생각한다면 자치단체와 함께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 제 9단계 : 1월 18일 >

기획처장님과 면담 요청하였으나 입시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1월 20일이라는 최종기한이 다가와도 두입술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외부로 힘을 실어보고자 한 연서받기나 서명운동 등의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활도서관은 총여공간을 쓰기로 확정하였다는니(통신 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함), 면담 때 각 단체가 각기 공간을 요구하겠다는니 하는 약속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치단체 공동의 공간이라는 미명하에 총여 공간을 사용해왔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이 너무 강하기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논의는 아마도 끝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지정된 기한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여성 자치단체의 탄압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이번 일은 학교 내의 침해한 공간 상황을 인식했을 때, 총여학생회라는 공식 기관으로서 고려해야 할 형평성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실질적 업무를 위해 11대 총여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총여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전에 총여 공간을 차지하던 몇 개의 자치단체들의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수업 조모임에서도 여성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획처장님과의 면담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내 여성 운동을 지원하는 총여의 방향이며 그곳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창/조 제 11 대 총여학생회